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라”  
기독교 지도자들, 정부의 박해 규탄 성명 발표



쿠바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과 예배 제한 등을 규탄하며, 정부의 조치가 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쿠바기독교연합(Alliance of Christians of Cuba, 이하 ACC)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조치가 악화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종교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국제기독교연대(CSW)는 2022년에 결성된 ACC가 쿠바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예배 장소를 합법화하는 것을 거부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벌금을 부과한 것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성명에 서명한 63명의 지도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묘사했다. 이 성명서는 “우리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실망스럽게 여긴다. 이로 인해 교회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100만 쿠바페소(약 5,871만 원) 이상의 벌금을 징수했으며, 이는 지역사회를 돕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로 간주된다. CSW는 “2023년 1월 이후, 쿠바 11개 주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최소 6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쿠바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연재해, 그리고 반복적인 전력망 고장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CSW는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대통령 정부가 종교단체를 포함한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바의 종교 자유 탄압은 2021년 7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CSW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22건의 종교 자유 침해가 보고됐다. 2022년에는 657건, 2021년의 272건이었다.

익명의 한 종교 지도자는 “나는 반혁명 교회가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 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를 중국, 이란, 북한 등과 함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3-25)**

하나님,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선행을 베푸는 종교 단체를 탄압하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벌금까지 부과해 예배를 제한하는 쿠바 정부를 주님께 고합니다.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며 기독교 박해를 더해가는 정부의 악한 권세를 파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때 성도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쿠바교회의 살아있는 예배가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가 되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우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레바논 신학교, 수백 명 난민들에 피난처 제공

최근 전쟁으로 1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레바논에서 한 신학교가 수백 명의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미션 네트워크가 최근 전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위치한 아랍침례신학교(ABTS)는 약 240명의 학생들에게 성경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와 학교 기숙사를 열어 전쟁으로부터 피난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시설을 제공했다. 캠퍼스에서는 공공 서비스, 식사,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지원 및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매일 드리는 예배를 지역 사회에 개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랍침례신학교의 룰와 말루프는 “위기, 전쟁, 혼란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에 익숙하다”며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왔고, 여기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잠언 9:9-11)**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레바논에 피난처를 제공하여 육체의 필요뿐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매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족한 중에도 나누기를 즐기며 섬기는 자들의 손길에 주의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잠시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혀주십시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교훈을 듣고 구원의 명철을 얻게 하소서.

### ▲ 조지아, 총선 이후 정세 불안…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퇴임 거부

동유럽 조지아에서 최근 친러 성향 여당의 총선 승리를 계기로 시위가 촉발된 가운데,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퇴임을 거부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 가입을 국정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조지아 내무부는 시위대 중 10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지난 10월 치러진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며 조작된 선거로 구성된 불법 의회는 새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이 없고 합법적 의회가 들어설 때까지 자신의 임기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16일 취임한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올해 12월 임기가 끝난다. 지난 총선에서 코바히제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53.9% 득표율로 승리했는데, 이후 국제 선거 감시단체에서 매표 행위와 폭력 등 부정선거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예레미야 23:5-6)**

하나님,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EU 가입을 놓고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나라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조지아를 다스려 주십시오.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의를 행하여야 하건만 이념과 강대국에 힘에 의하여 마음이 치우친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도록 깨우쳐 주소서. 갈등이 분노와 다툼, 폭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라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조지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텍사스 초등학교, 내년부터 성경 기반 교육과정 도입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초등학교에서 성경 기반 교육을 도입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주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블루보넷 러닝’(Bluebonnet Learning)을 최종 승인했다. 빠르면 내년 학기부터 텍사스의 약 230만 명의 초등학생(K-5)이 새 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특히 독서와 언어예술에 성경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커리큘럼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채택하는 학교는 주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새로운 변화가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칭했다. 지지자들은 “성경은 미국의 기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교육 과정에 통합하면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켜 성경에서 파생된 문학, 역사, 심지어 현대적 표현까지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케이샤 러셀 수석 변호사도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의 투표는 성경이 역사, 문학, 시, 음악, 예술, 정부, 사회 관습, 가치관, 행동 과학에서 교육에 적합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이 주로 기독교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 단체 ‘텍사스의 남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권한 강화’(SAAVETX)는 “이 변화가 공립학교를 단일 종교적 관점을 장려하는 플랫폼으로 변모시킬 위험이 있으며, 텍사스를 강하게 만드는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로마서 1:2-4)**

하나님, 진리에 반하는 공교육으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이때 텍사스 교육위원회가 미국의 기초가 되었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사스의 선한 영향력이 미국 전역에 퍼져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기준과 모범이 되는 주의 말씀을 모든 세대가 믿고 가르치기를 힘써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적 교육을 반대하는 자들의 심령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새롭게 하소서.

### ▲ 미국 미주리주, 낙태 권리 보장법 통과··많은 교회 반대 목소리 침묵

지난 11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0건의 낙태 관련 주민투표 중 7건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을 완화했으며, 특히 미주리주의 수정헌법 3조(Amendment 3)가 통과되면서 2022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힌 이후 발효된 낙태 전면 금지가 철회됐다. CBN뉴스에 따르면, 수정헌법 3조의 통과로 인해 미주리주는 주변 낙태 금지 주인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방문할 주요 지역이 될 전망이다. 기독교 배경의 프로라이프 단체 바운드포라이프(Bound4Life)의 제레미 제이콥스는 일부 교회가 3조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많은 교회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바나리서치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의 42%가 낙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회의 책임을 묻는 “엄중한 경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하원의원 저스틴 스파크스는 “우리가 무력한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며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디모데 후서 1:7-8)**

하나님,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여러 주에서 주민투표로 다시 철회되어 낙태를 권리로 보장하게 된 미국을 보며 생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이 일에 거룩한 사명으로 깨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교회가 침묵하고 타협하는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미국의 예수교회로 다시 일으켜 주소서.

### ▲ 호주, 강제노동·착취 6년 만에 140% 증가

호주 당국은 호주에서 강제 노동과 착취에 대한 신고가 최근 6년 동안 140% 급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다고 뉴시스가 2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호주 연방경찰에 따르면 강제 노동과 착취에 대한 보고 건수가 지난 6년 동안 140% 증가했다. 연방경찰은 유엔(UN)의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12월 2일)을 맞아 범죄 조직이 취약한 해외 근로자를 호주로 밀수하는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강제 노동 및 착취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3-2024년에 접수된 강제 노동 및 착취 신고는 69건이었으며, 이는 2018-2019년과 2019-2020년에 접수된 2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연방경찰은 2023-2024년에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신고가 382건 접수됐으며 “조직범죄 집단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이익을 위해 착취한다”고 지적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이사야 33:1-2)**

하나님, 무종교가 증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가는 호주에서 힘없는 근로자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인신매매를 일삼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부요함과 편안함 속에서 죄악에 무뎠진 심령이 아닌지 돌아보며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진리가 생명이 되기까지 애통하며 기도로 깨어나도록 일하여 주소서. 속임과 학대로 착취당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난한 심령에 주의 복음이 들려져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팔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유사 괴질 사망 71명...“호흡기 질환 추정”**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최근 독감 증세를 보이는 괴질로 인한 사망자가 애초 알려진 143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현지 당국이 파악했다. 5일(현지시간) 민주콩고 보건 당국에 따르면 남부 크왕고주 판지 보건 구역에서 지난달 10-25일 독감 증세를 보이는 괴질로 7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장관은 이날 킨샤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명은 병원에서, 44명은 집에서 사망했다”며 “병원 사망자 중 10명은 수혈 부족으로, 17명은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380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고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며 “감염 환자는 발열, 두통, 기침,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질병이 발생한 크왕고주 판지 보건 구역은 수도 킨샤사에서 약 700km 떨어진 외진 곳으로 주민의 40%가 영양실조를 겪는 취약한 지역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3일 크왕고주 당국을 인용해 14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이날 온라인 회견에서 “전염성 여부와 전염 경로를 포함해 이 질병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며 “초기 진단 결과 일단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험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앞으로 48시간 안에 감염된 사람들의 실험실 샘플 결과를 받으면 이 질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주 이 질병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민주콩고 보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야고보서 5:15-16)**

하나님, 변종 엠폭스의 진원지로 아직도 그 기승이 가시지 않은 민주 콩고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괴질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주를 모두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민주 콩고의 교회에 더욱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안녕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가난한 중에도 지체를 섬기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빵집 개점 소식에 인파 몰려 3명 압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한 빵집의 개점 소식에 식량난을 겪던 사람들이 몰리면서 팔레스타인 3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시스가 2일 A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중심부의 한 빵집 앞에서 대기 중인 팔레스타인 10대 소녀 2명과 50대 여성 1명이 인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흐에 있는 빵집은 밀가루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사고 당일 소량의 재고를 확보해 빵을 만들어 판매했다. 유엔(UN)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지구 중부의 모든 빵집이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며 “빵은 많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생명줄이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지경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전에도 빵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 사이에서 총격으로 여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역대하 20:9)**

하나님, 오랜 식량난으로 인해 먹을 양식을 구하려 몰려든 인파에 깔려 압사당하는 처참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자지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전에 대한 고통이 떠날 줄을 모르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쟁을 끝내주시고 양식이 없어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사 생명을 보존케 하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자지구의 영혼들이 있사오니 살아 있는 떡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 ▲ 수단 분쟁 2년째, 기독교인의 생존권과 인권 침해 심각

수단 내전이 2년째 접어들며 수단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충돌이 심화되고, 특히 기독교인의 생존권과 인권 침해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일 전했다. 수단복음주의연맹의 라팻 사미르 총무는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인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기독교가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간주돼 철폐 활동 혐의를 받는 등 종교적·정치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이 주로 거주하는 국내 실향민(IDP) 캠프와 전쟁 지역에서는 식량, 깨끗한 물, 의약품, 교육 자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수단의 고립된 지역으로 식량 지원을 확대해 1,500만 명에게 한 달간 배급할 수 있는 식량을 운송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1,1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그중 300만 명은 인접국으로 피신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식량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수단의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용병 및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세력의 참전으로 기독교 소수 집단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시편 76:8-9)**

하나님,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이들을 필요를 돌봐주소서.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 나라에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고통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픔과 눈물에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이들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크신 주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반역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소서.